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성경: 누가복음 7장 2~10절

Tag: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베틀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눅7:2-10)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낮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려는 때에 성안에서 장로들이 허겁지겁 뛰어 왔다. 그리고 빨리 성 안에 들어가서 병자 한명을 고쳐 달라고 하였다.

그 병자는 백부장의 종이였다.

그 백부장은 경건한 로마 사람으로 심지어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다.

예수님은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하여 성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백부장이 다른 벗들을 보내어 예수께 와서 다른 간청을 하였다.

간청의 내용은 수고롭게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라고 명령해 주시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 하시자, 그 하인이 곧 낮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두 복음서에는 세밀한 부분에서 각각 다른 내용들이 담겨있다. 마태는 그 병이 중풍병이라는 것, 그리고 백부장이 직접 와서 간청했다는 것이 다르다.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치유선포가 들어있다. 들러선 12명의 제자들은 각기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심문수사에서 오히려 두 증인의 증거가 상이할 경우 더 확실한 사건으로 간주함. 똑 같으면 짜고 거짓말 한다고 봄.)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겹쳐서 바라보면(슈퍼임포즈 기법) 사건의 실체에 더 정확하게 접근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성안에 퍼지게 됨.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지게 됨.

-중풍병은 시각을 다투는 질병. 응급처치가 늦으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됨.

-백부장은 급히 주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급파하여 되도록 빨리 모셔오도록 함.

-4절 간절히(σπουδαίως;스포우다이오스;서둘러 부지런히)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왜 오셔야 하는지를 상황하게 설명함. 경건한 백부장이며, 유대인을 사랑하며, 회당도 지어주었음. 등등.

-예수님은 흔쾌히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며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함.

-그 와중에 백부장은 하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을 것임.

-멀리서, 아니면 성벽 위에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지 모름.

-백부장은 애가 타서 벼를 보냄(아마도 말을 탄 참모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서 명령만 내려 달라고 전해라. 우리는 군인이기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내리면 즉각 시행합니다. 그러니 '나으라고 명령만 내려 주시면 나올줄 믿습니다' 하라!

-백부장의 벼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대로 전하자,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이 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네 믿은대로 될지어다! 하고 외치셨다.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8:13)

-그러자 백부장의 종이 즉시 나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교훈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몇가지 담겨있다.

1.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하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종은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기에 재산이 가까워서 빨리 낮게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뭐든 돈 생각이 앞선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비용을 계산한다. 이 친구들을 보냈으니 수고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예수님을 초청했으니 그 무리들을 대접해야 하지 않는가?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간청한다는 것은 위상이 깎이는 행동으로 어지간해서는 해서 안되는 것이며,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굴욕적으로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유대인들도 매우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틀림없이 고급스럽고 교양이 넘치고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받은 명문가 출신 백부장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백부장의 참모들은 아픈 자가 종(둘로스; δοῦλος)이 아니라 하인(파이스; παῖ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들로 삼은 종이란 뜻이다. (양자삼은 종)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서둘러 두 번째 벼들까지 파견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비용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거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신령한 동기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구원이나 전도는 사랑의 모티브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모티브가 구원 이야기의 핵심이다.

2. 백부장의 독창적인 믿음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급이다.

- 로마군대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철저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것이 로마군대를 당시의 무적군대로 만들었다.
- 백부장은 유대교에 귀의 하였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고, 주변에서 치유된 자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있었다.
- 또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 그렇다면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급박한데, 그 동안에 사랑하는 하인이 운명하게 되면 큰일이다 싶었을 것이다.
- 또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사람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금기시했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은 명령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이 뇌리를 스친 것이다.
- 그는 재빨리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님께 가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 이것은 항상 명령과 복종 사이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적용하기 적절한 윤리적 프레임을 믿음에 적용한 셈이다.
- 상황이 어찌 되었든, 예수님으로서는 백부장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매우 감동 되셨다.
- 당시에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런 독창적인 신앙심은 매우 교훈적이었다.
-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서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하신다.
- 물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문이 아니다. 아무 때나, 어떤 상

황이나, 무슨 소원이든지 통하는 만병통치약이거나 램프의 요정 지니의 딱 세가지 주문은 아니다.

-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구약의 오랜 역사 전통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대망이 있었다.

-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전국에서 요한에게 몰려들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언했다.

-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다.

-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일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그에게 나아가 구원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을 베푸신다.

- 오늘날에는 이 모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시고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주문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 오직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신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임과 동시에 영원한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다.

3. 백부장이 믿었고 그 사랑하는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

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8:13)

-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 물론 천국가는 구원은 본인의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이처럼 현실적인 구원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리; 구원의 모티브는 사랑이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